

K리그 대상 시상식…전남 ‘웃고’ 광주 ‘울고’

K리그2 최다 공격포인트 전남 발디비아 3년 연속 ‘베스트 11’
전북현대·인천유나이티드 독무대…광주FC 수상자 한 명도 없어

K리그2 최다 공격포인트에 빛나는 전남드래곤즈의 발디비아 3년 연속 베스트11에 선정됐다. 발디비아는 1일 서울 흥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5 대상 시상식’에서 K리그2 미드필더 부문 베스트 11으로 호명됐다. 발디비아는 전남 주장 완장을 찬 올 시즌 32경기에 나와 16골 9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2 최다 공격포인트를 장식했다. K리그 데뷔 시즌이었던 2023시즌 14골을 터트리면서 전남 해설사로 등극한 발디비아는 지난해 12골에 이어 올 시즌 16차례 골망을 흔들었다. 발디비아는 세 시즌 모두 베스트11 트로피도 차지했다. 이번 시상식은 K리그 1·2우승팀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의 독무대였다. 전북현대에는 이날 6명의 베스트11을 배출했다. 특히 송민규, 김진규, 박진섭, 강상운은 미드필더 네 자리를 썩어안겼다. 홍정호는 아잔(서울), 이명재·김문환(이상 대전)와 함께 베스트 수비수로 이름을 올렸다. 울산 조현우가 2017시즌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지켜왔던 베스트11 골키퍼 자리도 전북 송병근은 차지가 됐다. 올 시즌 15차례 클린시트를 장식한 송병근은 첫 베스트 11 영광을 차지했다. 송병근은 올 시즌 38경기에 모두 출전해 32점만 허용하면서 전북의 K리그1 최소 실점을 이끌었다. 부임 첫해 전북의 우승 질주를 이끈 거스 포엣 갠

독은 K리그1 감독상 주인공으로 단상에 올랐다. 수원FC의 싸박은 K리그 첫해 득점왕과 베스트 11 공격수가 되면서 2관왕이 됐다. 190cm의 장신 공격수 싸박은 올 시즌 33경기에 나와 17골 2도움의 활약을 펼쳤다. 특히 싸박은 왼발로 11골, 오른발로 4골, 머리로 2골을 기록하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과시했다. 대구FC의 세징야는 24경기에서 12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1 최다도움상을 수상했다. 울산HD의 이동경(36경기)도 12차례 도움을 올렸지만, 경기수에서 밀려 2위가 됐다. 대신 이동경은 2025시즌 ‘최고의 선수’가 됐다. 싸박과 나란히 베스트11 공격수로 이름을 올린 그는 K리그1 최우수선수상 영예도 안았다. 올 시즌 김전 상무 소속으로 34경기에 나와 13골 11도움을 장식한 이동경은 지난해 10월 전역 후 울산에 복귀해 2경기에 출전해 1도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강등 이후 한 시즌 만에 우승으로 1부 복귀에 성공한 인천은 K리그2 시상식의 주인공이었다. 12골 10도움의 활약으로 승격에 앞장선 제르소가 MVP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35경기에서 20골을 터트린 ‘우승 주역’ 무고사는 최다득점상과 베스트11 공격수까지 2관왕이 됐다. 지난 시즌 15골을 기록하면서 K리그1 최다득점상을 차지했던 무고사는 올 시즌에는 K리그2 골잡이로 활약하면서 K리그1, 2에서 모두 득점왕에 오른 세 번째 선수가 됐다.



1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K리그 2025 대상 시상식에서 K리그2 베스트イレ븐에 선정된 선수들과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민성준, 이주용, 김건희, 성남FC 베니시오, 신재원, 권 총재, 인천 유나이티드 제르소, 전남 드래곤즈 발디비아, 인천 유나이티드 이명주, 서울이랜드FC 에울레르, 인천 유나이티드 무고사, 성남FC 후이즈. /연합뉴스

인천의 최소실점(30점)을 이끈 수문장 민성준이 베스트11 골키퍼가 됐고, MVP 제르소와 이명주가 미드필더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이주용과 김건희는 베스트11 수비수로 뽑히면서 6명의 인천 선수가 베스트11을 차지했다. 우승을 지휘한 윤정환 감독은 2년 연속 ‘감독상’을 받았다. 윤정환 감독은 지난해 강원FC를 역대 최고 순위

인 2위로 이끌며 K리그1 감독상을 받았고, 올해는 인천의 우승을 지휘하면서 K리그2 최고의 감독이 됐다. 이와 함께 윤 감독은 K리그1과 K리그2 감독상을 모두 받은 첫 사령탑에 등극했다. K리그2 영플레이어상도 인천 박승호의 차지가 됐다. 박승호는 올 시즌 37경기에 나서 9골 1도움을 장

식하면서 후보 중 최다 출전,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한편 K리그1영플레이어상 주인공은 강원 이승원이 됐다. 프로 데뷔 첫 시즌이었던 2023년 13경기에서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던 이승원은 지난해 김전상 무에 입대, 올 시즌에는 32경기에서 1골 6도움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6 亞게임 근대5종 메달 따겠다”

전남도청 서창완·김영하 태극마크…亞경기 출전권 확보

전남도청 근대 5종 ‘쌍두마차’ 서창완, 김영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에 도전한다. 서창완과 김영하는 지난 30일 부산고등학교에서 끝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경기대회 근대5종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각각 1위와 4위에 오르면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 9월 열린 1차전 선발전에서 상위 18위에 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1·2차 선발전 성적을 합산, 남자 7명·여자 7명 등 총 14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남녀부 각각 상위 4명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얻었다. ‘베데랑’ 서창완은 총점 1575점을 얻으면서 1위로 국가대표가 됐다. 서창완은 펜싱(244점)·수영(298점)·장애물경기(370점)·레이저런(663점)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면서 선두자리를 지켰다. ‘루키’ 김영하는 펜싱 244점·수영 298점·장애물경기 370점·레이저런 663점 등 총점 1558점으로 4위에 올랐다.



지난 10월 전국체전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서창완(왼쪽)과 김영하. <전남도체육회 제공>

김영하는 지난 10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일반부 5종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실업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한편 광주시청의 전용태도 총점 1567점(펜싱 236점·장애물경기 360점·수영 300점·레이저런 671점)을 기록하며 전체 2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성재, PGA 우승 없는 선수 중 상금 8위

78억원…28개 대회 ‘톱10’ 3번

임성재가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상금을 번 선수 8위에 올랐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워크는 1일 올해 PGA 투어에서 우승 없는 선수들의 상금 순위 상위 20위까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성재는 올해 PGA 투어 대회에서 상금 508만2986달러(약 74억5000만원)를 벌여 이 부문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올해 PGA 투어 28개 대회에 출전, 세 차례 ‘톱10’ 성적을 냈다. 임성재는 2020년과 2021년에 한 차례씩 PGA 투어 우승을 기록했다. 2025시즌 PGA 투어에서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상금을 가져간 선수는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로 944만1931달러, 한국 돈으로는 138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캔틀레이는 전체 시즌 상금 순위에서도 9위를 기록했다. 올해 우승 없는 최다 상금 2위는 846만7191달러



를 번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다. 김시우도 389만102달러의 상금을 기록하며 이 부문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PGA 투어 전체로 우승이 없는 최다 상금 1위는 안병훈이다. 229개 대회에서 우승이 없는 안병훈의 통산 상금은 2153만5424달러, 원화로는 316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전남장애인체육회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 생존수영 프로그램 가보니



전남장애인체육회가 29일 목포 SPA 수영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진행된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생존수영 강습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물만 보면 울던 아이, 물 만난 ‘물개’ 됐다

한달 간 10명에 기초·생존 수영…자존감 회복 돕고 안전교육 효과

“물만 보면 울던 아이가 이제 먼저 ‘수영 가자’고 해요” 전남장애인체육회가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하며, 안전한 성장과 자존감 회복을 돕고 있다. 참가자들은 지난 29일 목포 SPA수영센터에서 1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어진 수업을 마쳤다. 이번 생존수영 프로그램은 목포시가족센터(센터장 최성숙 요세피나 수녀)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추진됐다. 센터는 다문화가정 출신이자 발달·경제성 장애를 지닌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기초 수영과 생존수영을 가르쳤다. 물이 낯설고 두려웠던 아이들은 이제 물 위에서 몸을 띄우고, 토레와 웃으며 장난을 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러시아 출신 발레리아(33)씨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아들을 이번 프로그램에 보냈다. 그는 “아이가 평소 집중을 잘 못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수영을 배우면서 집중력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너무 좋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 왔을 때는 아들이 물을 무서워

해서 많이 울었는데, 한 달 동안 계속 나오다 보니 지금은 울지도 않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따라 한다”며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수영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 이번을 계기로 계속 배우게 할 계획”이라고 웃어 보였다. 베트남 출신 김소연(40)씨는 아이의 수영 사랑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다. 김씨는 “수영을 다니면서 운동도 되고, 학교 밖에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좋아한다”며 “강사 선생님들도 아이들 특성을 이해해주고 잘 대해주셔서, 부모로서도 마음이 놓인다. 이런 수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수영 강습을 맡은 이효은 강사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수영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고, 말도 잘 안 해서 뭘 원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 소통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주말마다 만나면서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며 천천히 전해지니 물에도 적응하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다. 수영이 행동 발달과 정서 안정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걸 느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9살 아들을 둔 아버지 장영탁(60)씨에게도

이번 프로그램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장씨는 “아이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처음 수영을 배웠다. 혼자 배웠으면 외로워 했을텐데 토레와 함께해서 좋아하더라. 이번 프로그램에서 배운 수영으로, 내년에 여름에는 바다도 데려가서 같이 물놀이도 해 보려고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나라에선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교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물 안전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시설·인력 부족으로 ‘일회성 체험 수업’에 그치거나 장애·다문화 아동은 참여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시가족센터 김미에 과장은 “아이들이 정서, 장애, 언어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그동안 기존 생존수영 수업에서 많이 배제되었다”며 다문화와 장애를 함께 고려한 생존수영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시도로 평가된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임진출 사무처장은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들은 사회적 지원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교육이나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며 “체육회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 지원에 앞장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목포·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